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in Korea

강은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4년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한 30.9%였으며, 하나 이상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79.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자 중 여성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 경제활동 직종은 단순 노무직과 농림어업 숙련직,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로 하향 이원화되는 반면 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목단체, 동호회, 종교활동, 여행, 자원봉사 등과 같은 사회활동은 평균 1.5개로 나타났지만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도 전체의 20.9%에 이른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 계층 내 이질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노년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길어지는 노년기를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노인 건강, 주거 환경,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와 노인 특성 변화에 적응하고, 65~69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나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Larsen & Pedersen, 2017).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은 불안정한 노후소득으로 인해 실질은 퇴연령이 72.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4.3세보다 7.8세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OECD, 2017). 즉, 생애 최장기 일자리에서 은퇴하고도 노동시장에 남아 65세를 넘어서까지 근로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년층이 부상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아닌 여가활동을 포함한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교육이나 문화시설, 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이나 지역사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 증가에 따라 노년층 내부의 이질적 속성이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참여에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도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 경제활동 현황과 전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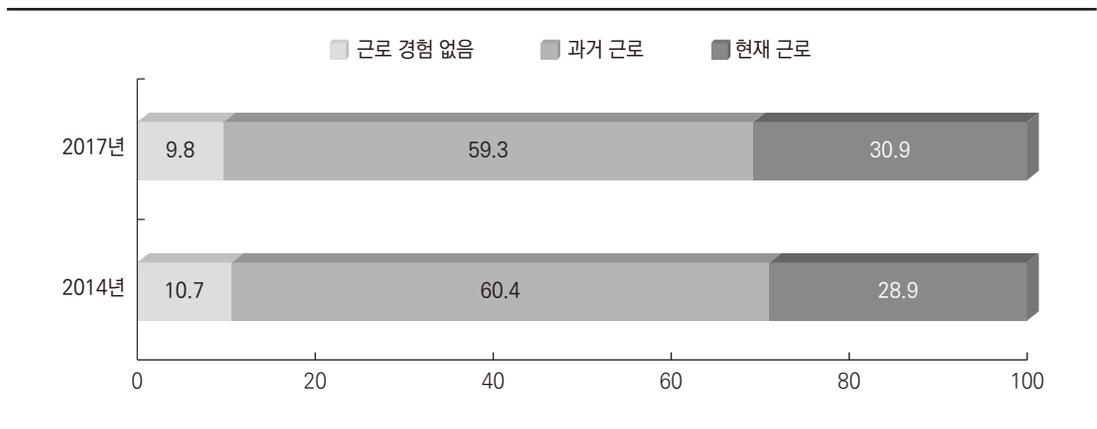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별 특성, 그리고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과 근로조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사회활동 영역별 특성, 그리고 희망하는 사회참여 분야를 살펴보았다.

2.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2017년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30.9%로 2014년의 28.9%보다는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일한 적이 있지만 조사 당시에는 일을 하지 않은 노인은 2014년 60.4%에서 2017년 59.3%로 감소하였으며, 전 생애에 걸쳐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 비율은 9.8%로 2014년의 10.7%보다 낮아졌다.

그림 1.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단위: %)



자료: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홍송이.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7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제활동 참여	2,970	28.9	3,117	30.9
성별				
남자	1,611	54.2	1,642	52.7
여자	1,359	45.8	1,475	47.3
연령대				
65~69세	1,292	43.5	1,398	44.9
70~74세	883	29.7	818	26.2
75~79세	536	18.1	620	19.9
80~84세	211	7.1	230	7.4
85세 이상	48	1.6	51	1.6
교육 수준				
무학(글자 모름)	218	7.4	162	5.2
무학(글자 해독)	568	19.1	483	15.5
초등학교	1,070	36.0	1,178	37.8
중학교	457	15.4	590	18.9
고등학교	468	15.7	540	17.3
전문대학 이상	189	6.4	165	5.3
가구 형태				
노인독거	542	18.3	592	19.0
노인부부	1,593	53.6	1,755	56.3
자녀동거	701	23.6	635	20.4
기타	134	4.5	135	4.3
거주 지역				
동부	1,875	63.1	1,672	53.6
읍·면부	1,095	36.9	1,446	46.4
기능 상태				
제한 없음	2,753	92.7	2,716	87.1
제한 있음	217	7.3	401	12.9

주: 대리 응답을 제외한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구원 샘플 가중치를 사용하여 교육 수준과 거주 지역의 합계가 3117명을 초과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017년 노인 경제활동 참여자 중 남성은 52.7%, 여성은 47.3%로 2014년에 비해 남성 노인 비율은 1.5%포인트 감소하고 여성 노인 비율은 1.5%포인트 증가하였다(표 1). 경제활동 참여 노인 중 65~69세 연령대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70~74세 26.2%, 75~79세 19.9%, 80~84

세 7.4%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해 70~74세 비율이 29.7%에서 26.2%로 감소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교육 수준을 보면,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초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각각 36.0%와 37.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 18.9%, 고등학교 졸업 17.3%, 무학(글자 해독) 15.5%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는 경제활동 참여 노인 중 무학인 노인 비율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경제활동 참여 노인 중 무학인 비율이 20% 수준으로 감소하고 중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제활동 참여자는 40%대에 이르고 있어 노인 경제활동 참여자의 교육 수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2017년 가구 형태를 보면(표 1),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56.3%로 가장 높

았으며 자녀동거 20.4%, 노인독거 19.0% 등의 순으로 2014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중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53.6%,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46.4%로 2014년에 비해 도시 지역 거주 노인 비율이 9.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경제활동 참여자 중 신체적 기능의 제한이 있는 노인은 12.9%로 2014년 7.3%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하였다.

남성 노인 중 경제활동 참여자 비율은 2014년 37.5%에서 2017년 38.3%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여성 노인 중 경제활동 참여자 비율은 2014년 22.7%에서 2017년 25.5%로 여성 노인 4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7년 42.2%로 2014년의 39.1%보다 3.1%

그림 2. 성별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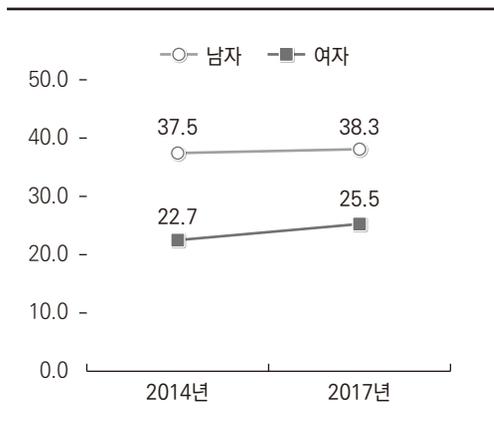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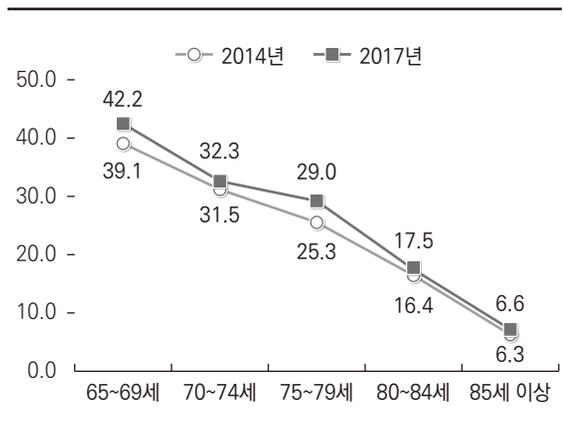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대별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단위: %)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포인트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70~74세 32.3%, 75~79세 29.0%, 80~84세 17.5%, 80세 이상 6.6%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75~7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폭이 높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 직종을 보면, 단순 노무직(40.1%)과 농림어업 숙련직(32.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4년과 2017년의 변화를 비교하면, 관리직(3.7% → 1.8%)과 농림어업 숙련직(36.4% → 32.9%) 비율이 감소한 반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4.8% → 7.5%)과 단순 노무직(36.6% → 40.1%) 비율은 증가하였다. 직종별 노인의 평균연령은 농림어업 숙련직과 단순 노무직이 각각 72.3세와 72.4세로 가장 높았으며, 기능원 관련직이 68.3

세로 가장 낮았다. 주당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은 판매직이 주당 5.7일, 44.9시간으로 가장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단순 노무직은 주당 3.9일, 23.9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관리직이 418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농림어업 숙련직은 월평균 52만 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 38.0%, 임시근로자 3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 11.7%, 일용근로자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2017년에는 2014년과 비교하여 임시근로자 비율이 26.2%에서 33.3%로 증가하였으며, 그 외 종사상 지위에서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고용주와 상용근로자의

표 2.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종사 직종

특성	관리직	전문직 및 관련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원 관련직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직	단순 노무직	계 (평균)
2017년도(%)	1.8	2.2	0.9	5.2	5.6	32.9	3.8	7.5	40.1	100.0
평균연령(세)	69.1	71.4	70.6	69.8	70.9	72.3	68.3	68.4	72.4	(71.6)
주당 근무 일수(일)	4.8	4.6	4.2	5.3	5.7	5.6	4.3	4.8	3.9	(4.7)
주당 근무시간(시간)	29.8	30.1	24.9	36.8	44.9	28.7	33.3	41.0	23.9	(31.1)
월평균 소득(만 원)	418.4	101.5	83.2	89.8	106.2	52.7	149.6	146.4	59.8	(79.1)
현 직업 종사 기간(년)	18.4	19.0	13.6	12.9	21.6	33.5	24.9	17.90	5.5	(18.2)
만족도(5점 기준)	4.1	4.3	4.0	3.4	3.2	3.2	3.6	3.6	3.7	(3.5)
2014년도(%) ¹⁾	3.7	2.7	1.5	5.5	6.3	36.4	2.6	4.8	36.6	100.0

주: 1) 2014년도 경제활동 참여 노인은 2970명, 2017년 경제활동 참여 노인은 3117명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3.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종사상 지위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계(평균)
2017년도	5.6	33.3	9.2	1.3	38.0	11.7	0.9	100.0
평균연령(세)	68.6	72.6	69.9	68.6	72.1	70.6	69.5	(71.6)
주당 근무 일수(일)	4.9	3.8	3.6	5.3	5.5	5.6	4.4	(4.7)
주당 근무시간(시간)	43.0	22.1	26.7	35.9	33.4	29.7	27.5	(29.1)
월평균 소득(만 원)	169.6	58.7	92.8	373.5	93.8	0	118.3	(79.1)
현 직업 종사 기간(년)	14.8	3.6	14.0	21.6	27.0	35.5	16.9	(18.2)
만족도(5점 기준)	3.9	3.8	3.3	3.9	3.4	3.1	3.7	(3.5)
2014년도	6.1	26.2	8.6	1.6	38.7	13.7	(5.1)	100.0

주: 1) 2014년도 경제활동 참여 노인은 2970명, 2017년 경제활동 참여 노인은 3117명임.

2) 2014년 조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기타'에 해당되는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평균연령이 약 68세로 가장 낮고,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평균연령이 약 72세로 높게 나타났다. 주당 근무 일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5.5일과 5.6일로 길었으며, 주당 근무 시간은 상용근로자가 43.0시간으로 가장 길고 임시근로자가 22.1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상용근로자와 고용주가 3.9점(5점 기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만족도가 3.1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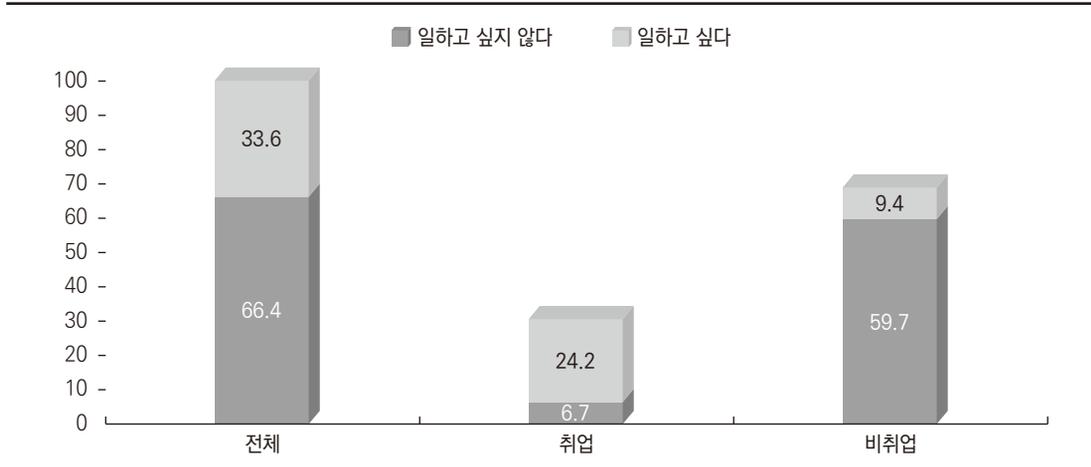
앞으로 일하고 싶은 의향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33.6%로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 30.9%보다 2.7%포인트 높다. 전체 노인의 6.7%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로 전체 노인의 9.4%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주당 근무시간과 월평균 근로소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연령대는 주당 30.7시간을 일하며 월평균 136만 4000원의 소득을 얻기를 희망하였으며, 70~74세는 주당 25.4시간 근무, 월평균 88만 4000원의 소득, 75~79세 연령대는 주당 21.1시간 근무, 월평균 80만 4000원의 근로소득을 희망하였다. 반면, 80대는 주당 20시간 미만에 월평균 50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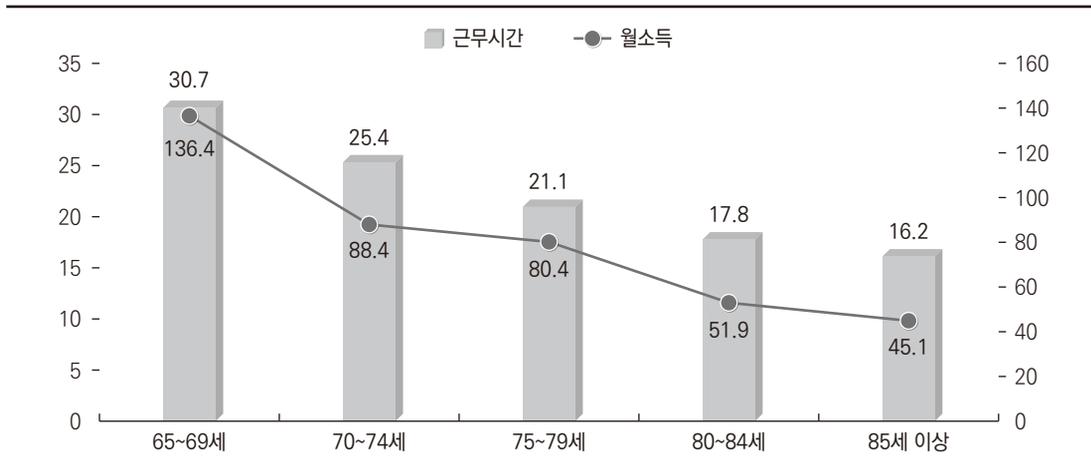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그림 5. 희망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시간, 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3.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종교 활동, 여행, 학습, 각종 단체활동, 자원봉사 등의 사회활동 영역별 참여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7년 우리나라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율은 53.7%,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은 33.8%로 나타났다. 각종 단체활동 참여율을 보면 친목단체 참여율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동호회 4.4%, 정치·사회단체 0.4%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습활동은 12.9%, 자원봉사 참여율은 3.9%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행 경험(29.7% → 33.8%)과 친목단체 참여율(43.3% → 45.6%)은 2017년에 증

가한 반면 동호회 참여율(4.9% → 4.4%), 학습활동(13.7% → 12.9%), 자원봉사 참여율(4.5% → 3.9%)은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율은 99.3%였으며, 1일 평균 시청·청취 시간은 3.8시간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7).

여행 경험, 학습활동,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자원봉사, 종교활동 중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개수를 통해 사회참여 규모를 측정하였다.¹⁾ [그림 6]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은 평균 1.5개(범위 0~6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전체의 32.4%로 가장 많았으며 2개 활동은 25.7%, 3개 활동은 14.7%,

표 4. 사회활동 영역별 참여율(중복 응답)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종교활동	-	53.7
여행 경험	29.7	33.8
학습활동	13.7	12.9
친목단체 참여	43.3	45.6
동호회 참여	4.9	4.4
정치·사회단체 참여	0.5	0.4
자원봉사	4.5	3.9

주: 1) 여가·문화활동은 2014년과 2017년도 질문 내용이 상이하여 비교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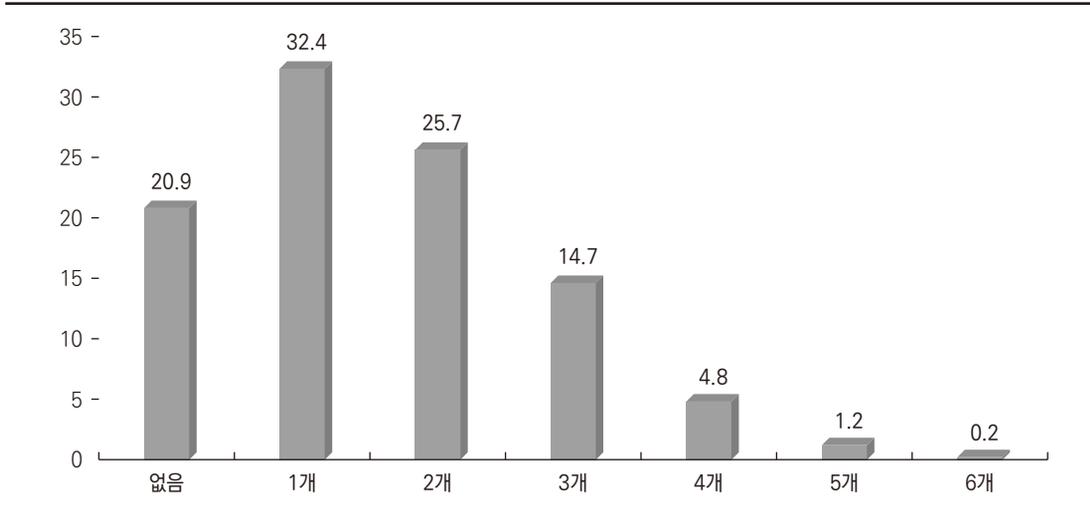
2) 2014년 조사에서는 종교활동 여부를 질문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1) 2014년 설문 문항에는 노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종교활동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종교활동 여부를 제외한 사회 참여 규모와 종교활동 여부가 포함된 2017년 사회참여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림 6]과 (표 5)에서는 2017년 현황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6. 2017년 노인의 사회참여 규모

(단위: %)



주: 본인 응답자 1만 73명의 자료를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4개 이상의 활동은 6.2%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인은 전체의 20.9%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개수에 따른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5). 남성 노인의 23.3%, 여성 노인의 19.2%는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전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의 사회활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대로 갈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활동이 없거나 하나 정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둘 이상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독거노인은 사회참여 수준이 취약한 반면 노인부부가구에 속

한 노인은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참여 규모가 전체 노인의 평균(1.5개)보다 많은 집단의 특성은 저연령, 고학력, 노인부부가구, 신체적 기능의 제한이 없는 노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3.64점)이었으며, 종교활동 3.11점, 친목단체 2.95점, 학습활동 2.03점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자료와 비교하면 취미·여가활동(3.49점 → 3.64점)과 친목단체활동(2.91점 → 2.95점)에 대한 욕구만 증가하고 나머지 자원봉사나 학습활동 등에 대한 희망이나 참여 욕구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과 2017년 모두 노인들이 선호하는 사회활동은 취미·여가

표 5. 2017년 사회참여 규모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사회참여	20.9	32.4	25.7	14.7	6.3	100.0
성별						
남자	23.3	30.9	26.4	13.8	5.6	100.0
여자	19.2	33.5	25.2	15.3	6.8	100.0
연령대						
65~69세	13.4	27.7	30.6	19.1	9.1	100.0
70~74세	18.4	30.2	27.8	16.7	6.9	100.0
75~79세	23.5	34.8	24.3	12.7	4.7	100.0
80~84세	30.5	39.4	18.3	8.2	3.5	100.0
85세 이상	38.3	40.6	14.4	5.0	1.7	100.0
교육 수준						
무학(글자 모름)	42.4	36.4	14.4	5.7	1.1	100.0
무학(글자 해독)	29.8	38.3	21.3	8.2	2.4	100.0
초등학교	22.0	35.8	24.9	13.2	4.1	100.0
중학교	16.5	28.8	29.9	17.7	7.1	100.0
고등학교	12.4	27.4	30.1	19.4	10.7	100.0
전문대학 이상	7.7	19.7	29.4	25.5	17.6	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24.3	36.2	21.0	12.4	6.1	100.0
노인부부	18.7	29.2	28.1	17.0	7.0	100.0
자녀동거	22.8	34.7	24.9	12.6	5.0	100.0
기타	15.8	35.6	29.3	12.1	7.1	100.0
거주 지역						
동부	20.1	33.0	25.2	15.2	6.6	100.0
읍·면부	22.7	31.1	26.9	13.4	5.8	100.0
가능 상태						
제한 없음	16.4	30.4	28.6	17.0	7.7	100.0
제한 있음	35.6	38.9	16.3	7.3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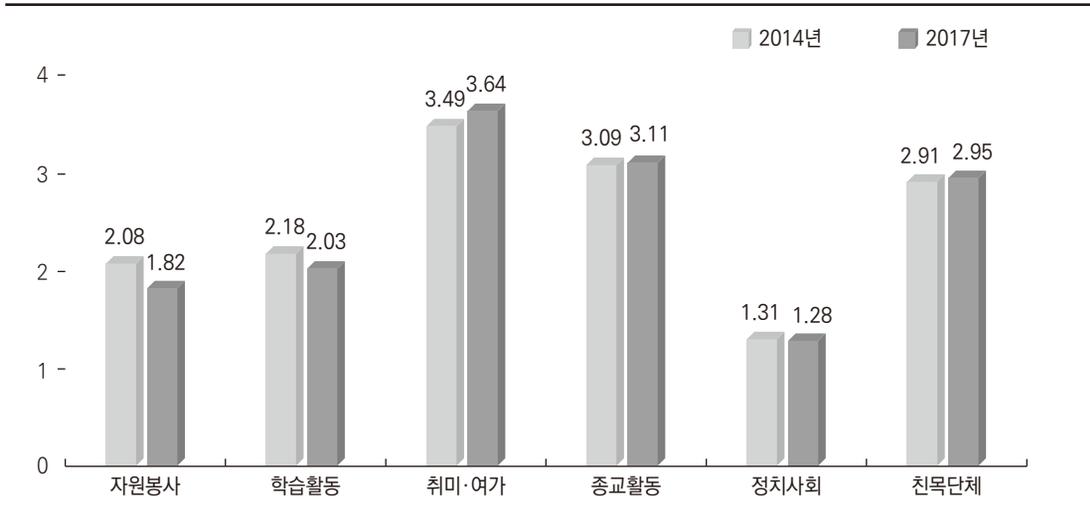
주: 본인응답자 1만 73명의 자료를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활동, 종교활동, 친목단체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지역사회 문화여가시설을 중심으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특히, 종교활동 참

여에 대한 노인의 욕구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종교활동은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의 종교단체에서 노년기의 자아실현과 영성 개발을 도모하고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7. 향후 희망하는 사회활동 영역(5점 척도)



주: 2014년 본인 응답자 1만 279명, 2017년 본인 응답자 1만 73명의 자료를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4. 나가며

우리나라 노인의 30.9%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노인 경제활동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성별과 교육 수준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노인 경제활동에서 남성 노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노인 중 여성 노인 비율이 47.3%까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자와 무학인 노인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7년을 기점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40%에 이르러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질적

변화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사 직종에서는 농림어업 숙련직과 단순 노무직이 여전히 노년기 경제활동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 참여 가능한 경제활동 영역의 하향 이원화 또는 노인 경제활동 범위의 제한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 비해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근로활동을 하고 싶은 노인은 전체의 33.6%로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 30.9%보다 2.7%포인트 높았으며, 연령대에 따라 희망 주당 근무시간과 월평균 근로소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종교활동, 친목단체, 그리

고 국내외 여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호회, 자원봉사, 정치·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개수는 평균 1.5개로 연령대가 낮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노인의 20.9%는 어떠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고립, 고독사 등의 위험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고립 집단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의 보다 면밀한 발굴과 지원이 요구된다.

노년기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은퇴 시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경력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취미활동이나 사회환원활동을 하는 것 또는 기존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등과 같이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와 통로를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 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특성이 노인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나타난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2년 후 실시되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양상이 지금보다는 다양하고 입체적이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arsen, M., & Pedersen, P. J. (2017). Labour force activity after 65: what explain recent trends in Denmark, Germany and Sweden? *Journal for Labour Market Research*, 50(1), 15-27.
-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